프로젝트명: Nirvana

패배하고 도주한 무사가 동료들을 되살리기 위해 시간을 되돌리는 유물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유물의 힘을 믿게 되는 계기=신비의 체험=

-다회차=루프

-조금씩 바뀌는 맵

-매번 바뀌는 퍼즐의 답=암시하는 단어

-기시감, 위화감

-변수=트리거=분기=해탈

-특이점

-메인 NPC=초월자 NPC=

-유적=아포피스의 유해

-시간을 되돌리는 유물=Samsara

북서부 유럽의 한 도시국가. 기사 신분을 지닌 주인공은 성실하고 정의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기사로써 영광스러운 전쟁과 승리를 동경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주인공이 직위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전쟁다운 전쟁’이 열린다.

전쟁의 상대는 가까이에 있으나 교류가 전혀 없는 깊은 숲 속의 요새국가였다.

우리 소속 농민이 우리 도시에 조공을 바치던 마을 주변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해 시체가 되어 발견된 것이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의회는 전쟁을 결정하고 선전포고를 하였다.

기대로 부푼 가슴을 안고 기사 동료들과 함께 병사들을 이끌며 지휘관의 뒤를 따라 원정에 나선 주인공이었으나, 전쟁터는 그가 생각한 명예롭고 삶에 대한 실감이 가득한 장소가 아니었다.

적들은 생각보다도 훨씬 강했고, 정말 같은 사람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덩치가 크고 격앙되어 있었다.

기사들은 인간을 벗어난 괴물들의 돌팔매와 칼질에 낙엽처럼 쓸려나갔다.

주인공은 공포에 질린 나머지 동료들을 내팽겨치고 숲속으로 달아난다.

몇날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상처도 내버려 둔 채로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기만을 반복하다 결국 힘이 다 되어 숲속에 쓰러져버린 주인공.

손가락은 몇개 잘려나갔고 피골이 상접해 이미 해골같은 몰골로 그저 죽기만을 바라며 쓰러진 채로 그저 이렇게 죽을 바에는 그 자리에서 용맹하게 싸우다 죽을 것을, 마지막까지 동료들 곁에 서 있을 것을 하고 가슴 깊이 후회하며 눈을 감는다.

그 순간 그저 바윗덩어리라고 생각했던 눈 앞의 거대한 돌문이 열리며, 웅장한 건축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주인공은 놀라면서도 건축물 안에서 장엄한 빛이 자신을 내리쬐는 것을 느낀다.

빛에 감싸이는 순간 주인공은 전신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정신을 잃는다.

주인공이 눈을 뜨자 그곳은 본적 없는 허름한 방 안이었다.

주인공이 방을 나서자 괴팍하게 생긴 노인이 말을 걸어왔다.

이곳은 숲속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마을이며, 그는 이곳에서 살아왔다.

며칠 전 주인공이 마을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데려왔다고 한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주인공은 자신의 몸 상태를 깨닫고 놀라게 된다.

잘려나간 손가락도, 도망칠 때 베인 등짝도 흉터조차 없이 말끔하게 나아있었으며,

쓰러진 뒤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으나 해골과도 같았던 몰골에서 다부진 근육을 지닌 강건한 신체로 돌아와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놀라서 손에 힘을 준 나머지 쥐고 있던 물잔을 깨뜨려 버리고, 조각이 손에 박힌다.

조각을 빼자 놀랍게도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흐른 피는 혈관으로 되돌아가고 상처는 순식간에 아물어 버렸다.

그걸 본 노인은 혀를 차며 말했다.

주인공은 유적에 사로잡혀 버렸으며, 유적 안에 있는 유물의 부름을 받고 있다.

유물은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어제를 내일로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유적 가장 안쪽에 자리잡고 있어 수많은 방해꾼들과 함정을 돌파해내야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적을 얻지 못하면 사로잡힌 자는 결코 이 숲을 벗어날 수 없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였지만 이미 말도 안되는 일이 자신의 몸에 일어나고 있는 만큼 주인공은 그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

노인에게 길을 물어 도달한 유적은 눈에 익은 곳이었다.

바로 쓰러진 그날 빛이 뿜어져 나온 그 건축물이었던 것이다.

건축물의 규모와 장엄함 때문에 알지 못했지만, 유적의 건축 양식은 고국의 것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띄고 있었다.

기묘한 느낌과 함께 방패도 갑옷도 없이 검 한자루만을 들고 주인공은 유적에 도전하기로 한다.

유적은 주인공은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다.

주인공을 끊임없이 덮쳐오는 본 적도 없는 괴물들과 작동 원리를 알 수 없는 정교한 함정들,

시시때때로 형태를 바꾸는 미궁들..

주인공은 몇번이고 꺾일 뻔 하면서도 쉬지 않고 유적을 돌파해 결국 가장 안쪽에 있는 유물의 방에 도달한다.

광휘로 가득 찬 정체불명의 유물에 손을 뻗으려는 주인공.

그러나 한손에 검을 든 수수께끼의 인물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고, 목숨을 건 마지막 싸움을 벌인다.

끝끝내 승리한 주인공은 유물을 손에 쥔다.

기묘한 느낌과 함께 방패도 갑옷도 없이 검 한자루만을 들고 주인공은 유적에 도전하기로 한다.

유적은 주인공은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다.

주인공을 끊임없이 덮쳐오는 괴물들과 작동 원리를 알 수 없는 정교한 함정들,

시시때때로 형태를 바꾸는 미궁들..

주인공은 몇번이고 꺾일 뻔 하면서도 쉬지 않고 유적을 돌파해 결국 가장 안쪽에 있는 유물의 방에 도달한다.

광휘로 가득 찬 정체불명의 유물에 손을 뻗으려는 주인공.

그러나 한손에 검을 든 수수께끼의 인물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고, 목숨을 건 마지막 싸움을 벌인다.

끝끝내 승리한 주인공은 유물을 손에 쥔다.

기묘한 느낌과 함께 방패도 갑옷도 없이 검 한자루만을 들고 주인공은 유적에 도전하기로 한다.

유적은 주인공은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다.

주인공을 끊임없이 덮쳐오는 낯익은 괴물들과 작동 원리를 알 수 없는 정교한 함정들,

시시때때로 형태를 바꾸는 미궁들..

주인공은 몇번이고 꺾일 뻔 하면서도 쉬지 않고 유적을 돌파해 결국 가장 안쪽에 있는 유물의 방에 도달한다.

광휘로 가득 찬 정체불명의 유물에 손을 뻗으려는 주인공.

그러나 한손에 검을 든 수수께끼의 인물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고, 목숨을 건 마지막 싸움을 벌인다.

끝끝내 승리한 주인공은 유물을 손에 쥔다.

….

유적의 입구에 주인공은 서 있었다.

그저 우두커니 서있었다.

이번에는 기억하고 있다.

자신은 분명 유적의 가장 안쪽에 도달해 유물을 손에 쥐었다.

그러나 유물은 그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유적에 도전하기 직전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었다.

몇번이고

몇번이고

그가 이번에 기억을 잃지 않은 것은, 유물의 앞을 가로막던 자의 심장을 꿰뚫었을 때,

그자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자신의 전우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그자는 누구인가? 어째서 자신의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가?

유물은 분명히 시간을 되돌릴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째서 그가 원하는 시간대가 아닌 의미불명한 회귀만을 반복하게 하는가?

주인공의 마음 속에는 유물에 대한 갈망이 아닌, 의문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유적은 이전의 찬란한 빛을 잃고,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들은 어디선가 본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일그러진 전우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괴성은 그들이 죽을 때 흘리던 신음소리나 단말마였다.

그들을 쓰러뜨리고 미궁을 돌파해 다시 도달한 유물의 방.

다시 나타나 주인공의 앞을 가로막는 자의 얼굴을 유심히 보다가 결국 그는 깨닫고 말았다.

그자는 자신이다.

몇번이고 이 방에 도달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다.

사실 전부터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는 그의 과거, 그의 미련, 과거를 외면하려는 그 자신이었다.

앞서 본 전우의 얼굴을 한 괴물들은 그의 죄, 그의 업보, 그의 카르마였다.

자신은 과거를 만회하려고 했지만, 그건 자신의 과거와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과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참회하지 못하는 증거였다.

결국 자기 자신을 쓰러뜨리고 다시 유물에 도달한 주인공은 이빨 빠진 검을 치켜들고 유물을 향해 내려쳤다.

그러자 유물은 이전의 찬란한 빛이 아닌, 악독스러운 빛을 내뿜으며 거대한 괴물로 화해 주인공을 덮쳐왔다.

주인공은 목숨을 걸고 싸워 유물을 쓰러뜨리고, 유물을 파괴하는데에 성공하였다.

눈을 뜨자 그는 유적의 문 밖에 있었다.

그곳에는 바위에 대충 걸터앉은 노인이 있었다.

그는 주인공을 향해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숲에서 나가는 길을 일러주었다.

그는 과거를 안고 돌아가야 한다.

그가 숲을 나섰을 때에는 뒤돌아 봐도 그가 걸어온 길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전우들의 시체들 만이 그가 떠난 그 때 그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그는 그들의 눈을 감겨주고, 양지바른 곳에 뉘여둔 뒤 고국을 향해 떠났다.